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환자/의사/사회 과정을 통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경험

채수진 · 신윤미 · 함기현 · 임기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s Educational Approach to Cultivating Professionalism

Su Jin Chae·Yun Mi Shin · Ki Hyun Hahm · Ki Young Lim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 Social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how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runs its curriculum to cultivate professionalism. The paper also proposes a plan for the next step for the school. The Patient-Doctor-Society (PDS) course, begun in 2009, can be summarized by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PDS course is an integrated curriculum that is not a one-time program for a specific grade, but a continuous program open for all medical students. Second, the PDS course is designed following the philosophy and educational goals of the institution, and the curriculum assures maximum autonomy. Third, the PDS course is 'whole person education' that provides knowledge and teaches skills and an attitude. By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rogram through annual evaluation, leaders of the program at Ajou will continue to consider what to teach and how to do so.

Keywords: Professionalism, Patients, Doctor, Society, Curriculum

교신저자: 채수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Tel: +82-31-219-4465
Fax: +82-31-219-4093
E-mail: edujin@ajou.ac.kr

접수일자: 2012년 5월 30일
수정일자: 2012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22일

서론

국내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전우택 외, 2002). 의학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의사로서의 인격 완성과 자질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인문사회의학'이라고 불리는 인문학 관련 교육이 있어 왔지만(박정환, 1996; 이성낙, 1996),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에 관한 공식적인 관심은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00년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개최된 제8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임기영(2001)은 '어떤 의학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왜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윤리적 측면에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 의과대학장협의회(2000)는 「21세기 한국의학교육계획」을 발표하면서 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선언하였으며, 전우택 등(2001)은 의과대학에서의 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의학 교육 나아가 의학전문직업성 함양교육을 실천하는데 체계적인 방안이나 정책대안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의과대학에서는 '인문사회의학'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1994년부터 인성교육을 실행하고자 노력했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아주의대)의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의학전문직업성 함양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주의대의 교육목표는 의학지식과 유능한 임상능력을 갖춘 의사의 양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명감, 책임감 및 윤리관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4년 3월에 개설된 의사학교실을 모태로 하여 1999년 3월 사회의학교육과로 개칭하였고, 2001년 4월 인문사회의학(Medical Humanities & Social Medicine)교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2학년도 현재 아주의대는 인문사회의학교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주의대가 의학전문직업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주의대의 교육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교육과정 변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2009년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교과목 편성은 Table 1과 같았다. 의예과 1학년에서 의학과 3학년 까지 총 10개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시간으로 환산하면 340시간, 학점도 18점에 달한다. 인성 관련 교과목으로 의사소통(30시간), 의학의 역사(28시간), 의료인류학(16시간) 교과목을 의예과 과정에서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과목은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과정 중 매주 수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었다. 예를 들어, 법의학, 의학윤리학, 리더십, 의료법규, 의학적 결정, 의료사회학, 실용영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의과대학생들에게 미술 및 예술 등의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과 접목하고자 의학과 예술 과목을 월 1회씩 년 10회를 운영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 이들 수업은 강의와 토론, 발표와 토의, 비디오 시청, 영화 감상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아주의대 학생들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의사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09학년도 새 교육과정 도입

2006년 12월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 7월 100명의 교수 중 97명이 찬성한 가운데, 그 해 9월 아주의대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9년 1월 'Ajou

Table 1. Medical humanities & social medicine curriculum before 2009

Subjects	Year/semester	Credits/times
Medical anthropology	1/2	2/16
Communication in health	2/1	1/24
English applications in medicine	2/1	1/32
English applications in medicine	3/2	1/32
English applications in medicine	4/1	1/32
English applications in medicine	4/2	1/32
English applications in medicine	5/1	1/32
History of medicine	2/1	2/32
Medical sociology	5/1	1/12
Leadership	5/1	1/12
Medical ethics	5/1	2/24
Medical decision making	5/1	1/20
Medicine & art	10 times/yr	1/20
Medical humanities & social medicine	10 times/yr	2/20
Total 10 subjects	-	18/340

Curriculum for Medical Excellence 2009 (ACME 2009)'라는 이름으로 아래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통합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 1)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을 통합하여 장기, 계통별 통합교육을 기본 틀로 삼는다.
- 2) 의과대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 3) 통합교육은 과정 단위로 구성하며 과정 당 책임교수와 부책임교수를 둔다.
- 4)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오후 시간은 강의 이외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 5) 교육내용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을 도입한다.

ACME 2009 개요는 Fig. 1과 같다. ACME 2009 통합교육과정은 주로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과정이지만, 환자/의사/사회(Patient-Doctor-Society)와 임상실습입문(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두 개 과정은 4년간의 전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교육과정으로 획기적인 시도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사/사회 1, 2, 3, 4과정은 기존의 10개의 교과목 340시간의 인문사회의학 교과목들을 128시간 8학점으로 재편성한 과정이다. 주임교수가 아닌 과정의 책임교수를 임명하고 교육목표를 실천하는 교육영역을 설정하며 다양한 교수-학습을 도입하였다.

환자/의사/사회 과정 소개

1. 기본 방향

아주의대의 졸업성과 중 하나는 21세기 바람직한 의사상의 구현을 위하여 학생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고, 다른 구성원과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지식, 수기 및 태도를 개발시키는 것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의대는 학생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직종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관계 지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기별 학습성가로 설정하였다. ACME 2009 새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질병, 의사 중심이 아닌 인간, 환자 중심의 생물/심리/사회학적 모델에 근거한 통합적 시야를 가진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습득하고 미래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경영관리능력, 윤리적 직업 등을 배양하는 것을 단위별 학습성가로 설정하였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2007)는 연구보고서에서 1) 인간과 고통에 대한 이해, 2) 의료윤리의 이해, 3) 자신에 대한 분석과 개발, 4) 의료와 사회관계에 대한 이해, 5)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 6) 의사의 직업 전문성 등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4년간의 학년에 따라 배정하면 Table 2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아주의대의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제시한 인문사회의학 교육목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st										
Body and constituents basic concepts of body function					General clinical medicine	Infection & immunity	Growth & aging	Digestive system	Pulmonology	
Patient-Doctor-Society 1					ICP 1					
2nd										
Nephrology urology	Cardiovascular system	Hematology & oncology	Endocrinology	Head/neck/skin	Reproductive course	Nervous system	Muscular skeletal	Mind/behavior	Preventive health promotion	
ICP 2					Patient-Doctor-Society 2					
3rd										
ICP 3		Internal medicine			Pediatric & adolescent medicine	Psychiatry/behavioral science	Surgery	Obstetrics/gynecology		
					Patient-Doctor-Society 3					
4th										
ICP 4	Elective course		ICP 4	Selective course		ICP 4	Clinical skill exam period			
Patient-Doctor-Society 4										

Fig. 1. Aju Curriculum for Medical Excellence 2009 curriculum frame.

Table 2. Classification of grades and teaching methods by educational objectives

Objectives	Grades			
	1st	2nd	3th	4th
Understanding human and suffering	-	Lecture	-	-
Understanding medical ethics	Lecture	-	Lecture/practice	-
Analyzing and developing self	-	-	Lecture/practice	-
Understanding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relations	Lecture	Practice	-	Lecture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	-	-	Lecture/practice
Professionalism as a doctor	Lecture/practice	Practice	-	Lecture

2. 환자/의사/사회 1

환자/의사/사회 1과정은 의학과 1학년 1학기에 17주 동안 2시간씩 총 34시간 진행되며 의학윤리, 의학사, 의학전문직업성, 의료와 사회 등 4개의 큰 주제로 구성된다. 수업 내용은 Table 3에 보는 바와 같다.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와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이론 중심의 지필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과정을 마치고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점으로 학생들은 의과대학에서 지나치게 쉬운 인문학, 사회학적 내용들을 배울 수 있고, 의료와 사회의 관계,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수업 및 발표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좋았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토론이나 발표준비를 위한 시간할애의 부담과 한 학기 동안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교수자간 내용연계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3. 환자/의사/사회 2, 3

환자/의사/사회 2과정은 의학과 2학년 2학기에, 환자/의사/사회 3과정은 의학과 3학년 2학기에 각각 17주 동안 2시간씩 총 34시간 진행된다. 환자/의사/사회 2, 3과정의 수업내용은 Table 4와 같다. 환자/의사/사회 2, 3과정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및 임상 실습교육과 연계하여 관련된 토픽을 결정하고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결정된 주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학생들은 환자, 의사,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5-6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발표를 한다. 모듈에 등장하는 환자는 사회·심리학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들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환자/의사/사회 2과정의 주제는 해당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통합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2학년 정신과 행동 통합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선별검사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

Table 3. Patient-Doctor-Society 1 curriculum

Field	Topics	Teaching methods
Ethics	Why medical humanities?	Lecture
	Principle of medical ethics	Lecture
	Euthanasia and abortion from an ethical perspective	Discussion
	Research ethics and involuntary treatment from an ethical perspective	Discussion
History	Western medicine	Lecture/presentation
	Asian medicine	Lecture/presentation
	Korean medicine	Lecture/presentation
Professionalism	Professionalism of medical treatment	Lecture/discussion
	Patient-centered medical treatment	Lecture/discuss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understanding of health	Lecture/discussion
	Communication: patient and doctor	Lecture
	Food and body	Lecture
	Medicine, science, and culture	Lecture
Society	Introduction to health insurance	Lecture/discussion
	Role of medical treatment in a multicultural society	Lecture/discussion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good doctors	Lecture/discussion
	Medicine and human rights	Lecture

Table 4. Patient-Doctor-Society 2, 3 curriculum

Course name	PDS topics
2nd courses	
Nephrology & urology	Orientation
	Intro to medical ethics
	Abortion of down syndrome fetus
	Egg selling
Nervous system	Reporting epileptic patients
	DBS for refractive depression
Mind/behavior	ADHD screening
	Chemical castration
Preventive health promotion	Compulsory medication for HIV patients
	Cosmetic surgery for minors
3th courses	
Pediatric & adolescent medicine	Decision making in medicine 1, 2
	Male adolescent circumcision
Psychiatry/behavioral science	Leadership 1, 2, 3
	Involuntary psychiatric admission
Surgery	Multiple organ transplantation
Obstetrics/gynecology	Commercial surrogacy

PDS, Patient-Doctor-Society; DBS, deep brain stimulation; ADH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식 통합교육과정 시기에는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의 인공유산에 대한 찬반 토론 등을 각각 시행하였다. 각 모듈은 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등 인문사회이학교실 교수들이 다학문중심(multi-disciplinary based)으로 접근하여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의사/사회 3과정은 환자/의사/사회 2과정

에 비해 심도 있고 의료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는 패널토의에 참가한 임상교수들의 교수평가와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료들을 직접 평가하는 동료평가가 시행되었다.

인문사회이학교실 교수들은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교육과정 및 임상실습과의 연계를 고려한 모듈을 개발하였다. 환자/의사/사회 과정 책임교수는 해당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상교수를 패널로 초청하였다. 환자/의사/사회 2, 3과정에서는 강의보다는 패널토의방식을 도입한 팀접근 협동학습(team approach learning)을 적용하여 세련된 토론수업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의과대학 특성상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물리적 시간 확보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환자/의사/사회 2, 3과정은 통합교육과정과 임상실습교육 간의 내용 연계성을 1차 목적으로 두어 수업 간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인문사회이학교실 수업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과정을 마치고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정평가 결과, 학생들은 토론주제를 통합교육이나 임상실습 진도에 맞춰 임상과 연관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좋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패널이 되어 직접 토론을 주관하고 전문가 교수의 코멘트를 듣는 방식이 신선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이 있었다. 반면, 단점으로 패널토의방식과 동료평가실시를 지적하였는데, 패널토의방식이 생소하고, 고른 학생들의 발언 기회가 적어 학생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모두 열심히 준비한 동료들을 상호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된다고 대답하였다.

4. 환자/의사/사회 4

환자/의사/사회 4과정은 2012학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과정으로

Table 5. Patient-Doctor-Society 4 curriculum

Field	Lesson contents	Methods
Law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Lectur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quarantine act,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Lecture
	Medical litigation and precedents	Lectur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Lectur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Lecture
	Blood management act	Lectur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Lecture
Professionalism	English curriculum vitae writing	Lecture/practice
	Cover letter writing	Lecture/practice
	Letter of reference writing	Lecture/practice
	Communication 1	Lecture
	Communication 2	Practice/feedback
Society	Communication 3	Practice/feedback
	Patient rights	Lecture/discussion
	Reality of health insurance in Korea	Lecture/discussion

의학과 4학년 2학기에 1주 동안 2시간씩 총 30시간 진행되었다. Table 5와 같이, 새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의료법규를 새롭게 추가하여 흔한 의료소송과 판례, 보건의료 기본법, 한국 의료제도 변화과정, 보건의료정책 등 의사로서의 직업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개인이력서 작성법(curriculum vitae), 영어 논문 작성법, 참고문헌 작성법 등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이하다.

결론

2009학년도부터 실시한 아주의대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과정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주의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자/의사/사회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특정 학년에 일회적으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의학과 전 학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종적 통합과 각 통합교육과정 및 임상실습교육 내용과 연관된 주제를 함께 다루는 횡적 통합을 실천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펴고 있다. 이것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단락적인 현상이 아닌 것처럼 의학전문직업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또한 의학교육 전체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에 의과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주의대는

2007년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재정비하였는데, 의학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 역량(competence), 자기개발(self-development), 리더십(leadership) 등이 그것이다.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사회가 요구하는 소명 의식과 책임감, 품위와 윤리 도덕관을 갖춘 의사,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을 갖춘 의사와 같은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셋째,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지식, 수기, 태도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의학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을 함양한다는 것 또한 지식습득에 국한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교육방법 또한 기존의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이론과 실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 하였다.

환자/의사/사회 과정은 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측면을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환자, 의사, 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시야를 넓히고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습성과를 행동 동사로 설정하기가 어렵고 가시적인 평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었다.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점에 있다. 인문학, 사회학적 지식에 익숙지 않은 교수자는 그만큼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아주의대는 매년 평가를 통하여 환자/의사/사회 과정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며 장차 학생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ACKNOWLEDGMENT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아주대학교 교과목 개발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박정환(1996). 인성교육 학습사례: 대구효성가톨릭의대. 한국외과대학장협의회/한국외과대학교육학회 (편). 의과대학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자료집, pp. 53-62. 서울: 한국외과대학장협의회/한국외과대학교육학회.

이성낙(1996). 인성교육 학습사례: 아주의대. 한국외과대학장협의회/한국외과대학교육학회(편). 의과대학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자료집, pp. 44-49. 서울: 한국외과대학장협의회/한국외과대학교육학회.

임기영(2001). 의사와 사회: 윤리적 측면. 한국외과대학장협의회/한국외과대학교육학회(편). 의사와 사회. 제8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집, pp. 41-45.

서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
전우택, 김선, 양은배(2001). 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우택, 성명훈, 천병철(2002). 의료의 문화사회학. 서울: 몸과마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2000). 21세기 한국의학교육계획(안). 서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2007).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